



영어강의 전략

● ● ●
영 미 영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시간강사

국제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면서 대학 교육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중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강의(English Medium Instruction)는 국제 감각을 지닌 글로벌 인재 양성을 물론 대학의 국제 경쟁력 평가에서도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각 대학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공 내용 전문가인 많은 교수자들은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전공 지식의 충분한 전달이 어렵고, 강의 준비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담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 대학에서 영어를 매개로 진행되는 강의 역시 근본적인 목적은 수업목표 달성, 즉 전공 지식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므로 강의준비와 전략에 있어서 일반 강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영어를 매개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영어강의를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준비]

■ 명확한 수업목표와 구조가 포함된 강의계획서 작성

영어강의 수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에게 자신감을 줌으로써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가 학습에 대한 필요조건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다. 명확한 수업목표와 수업의 전반적인 구조, 그리고 상세한 평가 기준이 포함된 강의계획서를 작성해 수강신청 전에 학습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강의 전략

■ 전공용어 정리

전공마다 고유적으로 자주 쓰이는 용어, 특히 학습자들이 사전이나 번역기를 통해 해석을 할 때 어려움을 겪을 만한 전공용어는 따로 정리해 준비한다.

■ 영어강의 교수자 지원 워크숍 및 프로그램 참여

가능하다면 영어강의 교수자 지원을 위한 워크숍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영어강의를 위한 지식을 얻고, 동료 교수자들과의 의견교류를 통해 강의전략에 대한 공유도 가능하다.

【실행】

■ 공감대 형성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강의 첫 시간에 긴장하게 된다. 특히 영어로 강의를 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수업 분위기가 다소 경직될 수 있다. 이에 강의 첫 시간에 강의계획서에 제시했던 강의 목적, 진행방식, 평가방식 등을 포함해 영어로 진행되는 비율, 한국말 허용 범위 등에 대해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수자와 학습자들의 간단한 자기소개 과정을 통한 서로의 경험, 현재 상황, 요구조건들에 대한 이해는 이후 의사소통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 학습 이해 촉진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새로운 내용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정보, 경험에 바탕을 두고 제시될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학습자들이 내용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영어강의 경우에 강의 전에 학습내용이나 핵심단어들을 미리 제시해 예습을 하게 하고, 예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한다면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다.

- 강의 전 예습을 위한 핸드아웃을 제공한다.
- 성찰노트 및 질문을 올리게 한다.

■ 명확하고 자세한 설명 제공

영어강의를 진행하는 교수자가 영어 발음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영어발음이 단시간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습자들의 이해에 큰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좀 더 명확하고 자세한 설명을 위한 노력을 통해 학습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 되도록 쉬운 표현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한다.
- 영어로 익숙하지 않은 기본개념이나 용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한다.
- 다양하고 적절한 예를 사용한다.
-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속도를 조절하거나, 반복해서 설명한다.
-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거나 강의녹음을 통한 자기진단으로 속도나 수준을 체크한다.

■ 비언어적 의사소통 활용

영어강의를 신청한 학습자 중 일부는 영어듣기 자체에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이는 특히 학기 초에 대부분 학습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기도 하다. 몸동작, 시선, 제스처, 표정 등의 비언어적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영어듣기 에 도움이 된다.

- 학습자들을 정면으로, 골고루 바라보고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 다양한 음색이나 억양을 이용하고, 특히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음을 낸다.
-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제스처를 이용한다.
- 필요시 약간의 과장된 몸동작을 이용해 집중을 유도한다.

■ 적극적인 참여 유도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수업을 듣는 학습자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부담이 된다. 내용이해를 위해 긴장하고 수업에 임하게 되는 편안하지 못한 분위기도 문제이며, 영어로 말을 하려면 일단 문법을 생각하게 되어 선뜻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자들이 편안하게 영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강의 전 예습을 통해 미리 질문을 준비하도록 한다.
-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영어이름 사용, U자형 책상배치 등).
- 질문을 할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대답할 수 있는 쉽고 가벼운 질문을 사용한다.
- 학습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를 제시한다.
- 소그룹 활동이나 토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프레젠테이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강의 전략

- 학습자들이 말을 할 때 영어실력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

■ 다양한 매체 및 보충 자료 활용

효과적인 영어강의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이해와 주의집중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매체나 자료를 사용한다.

- 강의 전에 중요한 개념이나 내용을 요약한 핸드아웃을 제공한다.
- 강의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보충자료들을 제공한다.
- 학습자들의 이해를 돋기 위한 그림, 사진, 그래프, 차트, 동영상 등을 적극 활용한다.

■ 활발한 상호작용 촉진

부담감이 큰 영어강의에서의 풍부한 상호작용은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정서적인 공감도를 높여 수강에 대한 자신감을 줄 수 있어 중요하다. 특히 웹을 통한 상호작용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 학습자들의 모든 학습 활동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 스터디 그룹이나 웹 커뮤니티 활용을 권장한다.

[마무리]

■ 다음 수업 예고

강의가 끝나기 직전 다음 강의의 주제, 핵심 내용, 이번 강의와의 연관성 등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기대감과 호기심을 갖게 한다. 특히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꼭 알아야 하는 용어나 개념은 강조하여 학습자 스스로 예습할 수 있도록 한다.

■ 복습을 위한 자료 및 활동 제공

일부 학습자들은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의 이해에 대한 걱정으로 모든 강의 내용을 받아 적거나 녹음을 하느라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강의 후 시간 내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학습자들의 이해와 집중도에 도움이 된다.

- 강의 후 강의록이나 음성 또는 동영상 파일을 제공한다.
- 강의 시간 내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올리게 하고, 교수자 혹은 학



습자가 답을 하도록 한다.

[평가]

■ 영어실력이 아닌 전공지식 이해도에 초점을 맞춘 공정한 평가

학습자들이 영어강의에 갖는 부담감 중 하나가 평가 부분이다. 특히 영어를 잘 하는 학생이나 교환학생이 많은 강의인 경우 부담을 크게 느껴 중간에 강의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영어강의는 영어 실력 향상이 부수적인 목적이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전공지식의 전달이므로 초반에 학습자의 영어실력을 미리 파악하여 영어실력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강의 초반에 평가 기준을 정확히 세우고 영어 실력에 의해 평가할 부분의 평가비율을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수시로 평가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에서는 학습자들의 이해도와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수시로 퀴즈나 시험을 보는 것이 좋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강의 전략이나 난이도를 조절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이해를 돋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 유연한 시험방법 활용

일반 강의에서도 두려운 시험에서 영어로 답을 작성해야 하는 일은 학습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전공 지식은 충분히 이해한 학습자가 영어 읽기 혹은 쓰기 능력이 부족해 제대로 답안을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여러 개의 시험문제 리스트를 미리 제시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중 몇 개를 시험으로 내거나, 시험문제 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모국어로 보충 설명해 주는 방법 등으로 학습자들이 영어 실력 때문에 전공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